

사회

교통위반 운전자들 '범칙금 버티기'

광주, 미납자 해마다 증가... 이의신청도 늘어

광주지역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미납액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신호위반·무단횡단·중앙선침범·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건수는 모두 29만3973건이다.

2008년에는 9만2896건(부과금액 34억4000만원), 2009년에는 9만8193건(36억7000만원), 2010년 10만2884건(41억1000만원)이 부과되는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

된 범칙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미납액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년간 미납금액은 모두 19억원에 집계됐다.

교통 범칙금은 징수된 뒤 도로교통 안전 시설물에 대한 재투자 비용으로 사용되는데, 징수율이 낮을수록 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비용도 감소돼 교통환경 시설도 열악해지는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납부가 저조한 것은 경찰이 범칙금 미납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주로 가산금 부과 등 기초적인 제재에 의존하는 바람에 납부자들의 납부여의가 크게 떨어지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는 범칙금 부과에 반발해 지난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건수는 80건에 이른다.

특히 범칙금 미납 등으로 인한 면허 정지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까지 되는 경우도 잇따라 무면허 운전자도 양산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범칙금을 안 낼 경우 기간에 따라 즉결심판으로 납기인데, 체납자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며 "강력 단속할 경우 오히려 시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단속 방침을 정해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라며 말했다.

연도	부과건수	부과액	납부액
2008	9만2896건	34억4000만원	28억원
2009	9만8193건	36억7000만원	30억7000만원
2010	10만2884건	41억1000만원	34억5000만원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납부기간(1차 10일, 2차 20일)에 범칙금을 납부치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자가 되며 60일이 지난 뒤에도 추가 범칙금(1.5배)을 납부치 않거나 즉결심판 기일에도 출석치 않으면 4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 된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1억 들인 저온 설비 엉터리

1억5천만원 어치 농산물 썩어 내다 버릴 판

광주의 한 농산물 유통업자가 1억 여원을 들여 설치한 저온 저장 설비가 불량인 탓에 농산물이 부패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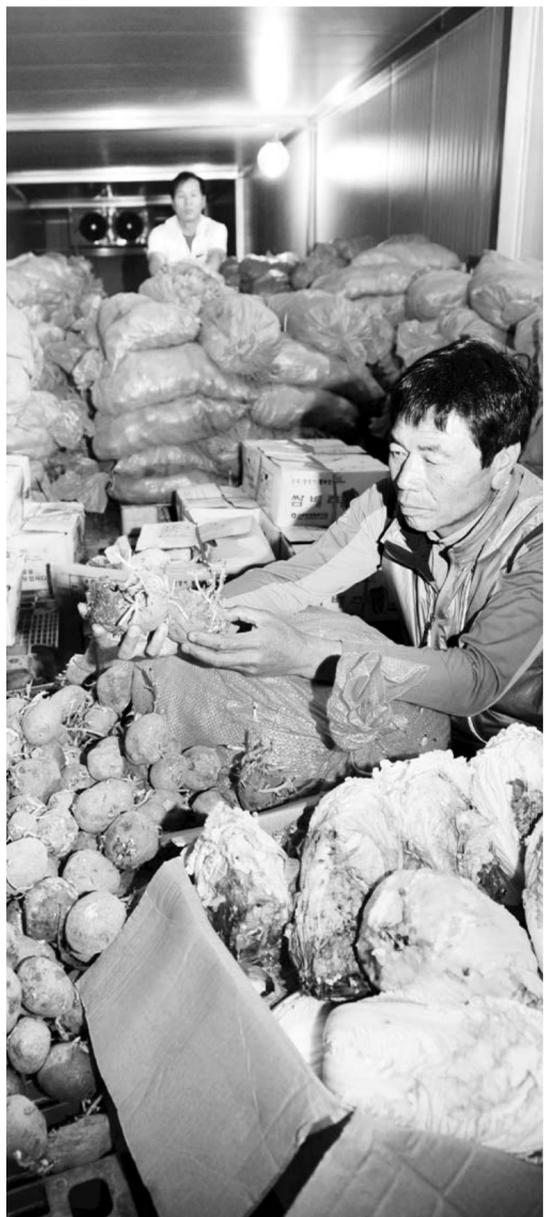
지난 31일 광주시 서구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박모(53)씨는 "1억 5000만원 가량을 투입해 설치한 농산물 저온 저장 설비 9기가 대부분 썩고 나 불량제품이어서 보관중인 농산물이 못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곡성군 오산면 소재 업체를 통해 지난해 6월 저온 설비를 설치했다.

새제품인 줄 알았던 저온 설비가 썩고 나 불량제품이어서 냉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창고 안에 보관중인 감자 등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이 썩어 폐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박씨는 설명했다.

실제로 전문가가 박씨의 저온 설비를 점검한 결과 제품 고유번호와 제조일자 등이 적혀있는 철제 라벨이 없는 등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식제품과는 다른 너트를 사용하거나 곳곳에서 용접 흔적이 발견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설비 자체에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설치 업체를 통해 수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온 설비 설치업체 관계자는 "설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박씨의 창고 형태가 문제이기 때문에 더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시 서구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박모(53)씨가 지난 31일 "냉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엉터리 저온 저장 설비 때문에 감자가 썩어 버려 폐기처분해야 할 형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법인택시 회사 불법 알리겠다"

시청서 타이어 불 지른 지입택시 기사 입건

자신을 지입택시 기사라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법인택시 회사의 불법을 알리겠다고 광주시청 앞에서 타이어 방화소동을 벌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청은 지난 31일 시청 주차장에서 타이어에 불을 지른 김모(59)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광주시청사 주차장 입구에서 타이어 2개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택시 회사인 S운수 기사인 김씨는 경찰에서 "매달 일정액을 받기로 한 뒤 회사에 4600만원을 주고 차량 2대를 매입해 운행했으나 약속한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S운수 측이 법적으로 회사 소유인 택시를 김씨에게 판매한 뒤 운행하도록 하는 일명 '지입차' 운영을 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지 가려 낸다는 방침이다.

만약 김씨의 주장처럼 법인택시 회사 기사들에게 지입차 운영을 하도록 한 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차량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 본 뒤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나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등록금 혁명' 일어날까

누리꾼 정당 창당 추진 8~10월 선관위 신고

대학 등록금 문제 논의에 정부와 정치권이 가세한 가운데 누리꾼 사이에 '교육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을 공식 창당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트위터에 교육혁명당 페이지를 개설한 누리꾼 '레인맨'은 지난 31일 "당 11개 지역본부와 전국 24개 지역당원 협의회를 토대로 오는 8~10월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식 창당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을 'IT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남성'으로만 알려 달라는 누리꾼은 "등록금 문제는 시민운동 차원을 넘은 정치적 현안"이라며 "현 정치권이 내년 총선 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조짐이 없으면 당을 만들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힘없는 정의는 허풍에

불과하다"며 "진정 잘못된 교육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다면 권력을 쥔 이들에게 맞설 조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며 그 때문에 우리도 현실 정치조직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정파색을 띠는 오해를 피하고자 특정 정당이나 시민단체와 연대는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인인든 논객이든 개인 자격으로 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막지 않을 계획이다.

교육혁명당은 온라인에서 등록금 문제를 논쟁하던 누리꾼들이 지난 4월19일 '등록금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모임이다. 전국 각지와 외국에는 중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나이의 누리꾼 1600명 가량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육혁명당이 내건 정당 과제는 ▲등록금 개념 폐지 ▲사교육 문제 해소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 전인교육 체계 마련 등 크게 3가지다. /연필뉴스

나원침



전남대 생명기술학부생 총장실 점거 농성

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 학생 100여명이 지난 31일 오후 3시30분부터 총장실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생기부 해체 계획 철회 등을 주장하며 김운수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현재 본부 직원 학부제인 생명과학기술학부의 생명과학·시스템생명공학전공을 자연대, 생물공학전공을 공대로 소속 변경하는 옛 체제로의 환원에 반대하면서 대학본부가 추진중인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직할 학부 체제에서 단과대로의 환원으로, 그동안 학부위의 배제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부분을 보완하는 등 장점이 크다고 반박했다.

전남대는 최근 여수대와 통합 이후 이뤄졌던 15개의 유사·중복학과 통합 등 학사개편을 추진중이 있으며, 직할본부 체제인 생명과학기술학부를 옛 체제로 환원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맨땅에 풋말 가짜 묘 만들어 신고

5천만원 부당수령 사이비기자 영장

보조금 꿀꺽 군의원 입건

정부 보상금과 보조금을 잘못처리한 사이비기자 영장과 군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1일 무연고 묘를 자신의 묘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수천 만원의 보상금을 가로챈 한국 K신문 기자 오모(63)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진도군의 한 개발촉진지구 도로개발 공사 부지에 있는 분묘의 보상금을 노리고 무연고 묘 27기의 연고자가 자신과 마을 주민 5명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군에 보상금을 청구해 5000만원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맨땅에 풋말 낫은 가짜

묘를 무연고 묘라고 속인 뒤 사진을 찍어 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씨가 보상금을 타낸 과정에서 분묘 개장 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 B(45)씨가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업무 착오로 신고필증을 발부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목포경찰청은 이날 건물을 증축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신안군의원 윤모(여·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여성 농업인 농의 소득개발사업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후 2007년에 증축한 자신의 창고를 또다시 증축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안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광주서 하룻밤새 차량 12대 털려

지난 28일 풍암동 일대서 31일 봉선동서도 4건 발생

최근 전북지역에서 차량 수습대가 한꺼번에 털린 가운데 광주에서도 하룻밤 사이에 10대가 넘는 차량이 털리는 등 차량 털이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1일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 일대에 주차된 승용차 4대가 털려 130만원 상당의 금품이 도난당했다. 지난 28일 담양군 일대에서 동일

수범으로 추정되는 차량 털이 사건이 1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차량은 대부분 고급 승용차이며, 모두 운전석이나 조수석 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돼 피해액이 최소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까지 정확한 범리는 등 차량 털이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TV에 찍힌 모습을 토대로 용의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호기기자 kimho@kwangju.co.kr

트로트 가수 협박 조양은씨 조사



○서울 용산경찰은 지난 31일 지인 이분 투자 손실을 물어내라며 트로트 가수 A씨를 협박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인 조양은(61)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9년 8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A씨에게 "주식 투자로 본 손실 17억원을 변제하라"며 협박을 한 혐의.

○경찰은 A씨한테서 "강남 모처에서 조직원을 대동한 조씨에게서 '다리를 잘라 땅에 묻으려다 잡았다'는 말을 들었다"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협박 내용을 확인 중. /연필뉴스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림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개강)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경찰직

강의시간: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출출강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특강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어, 국어, 행정, 행정, 국어, 헌법, 화학, 경제, 교육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합격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학습수업 개강)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 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매월
1일